

# 세계관 & 스토리

## ● 세계관

인류의 21세기는 찬란했다. 핵융합과 원자력 기술의 일상화, 인간은 따라잡을 수 없는 능력과 충성심을 지닌 인공지능, 마침내 완성한 초전도체... 각종 첨단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중 화룡점정은 2070년대에 발견된 신자원 '퓨라이트'였다. 인류는 물질과 반물질을 합성해서 양전자 1g의 양으로도 원자폭탄 3개에 달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축적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퓨라이트의 발견으로 이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안 가 퓨라이트는 석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미래 자원으로 쓰였으며,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기술을 현실로 만들었다. 퓨라이트를 발견한 학자는 이 물질의 연구와 상용화를 위한 회사 F사를 설립했고, 단숨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각종 세계기구에도 F사의 입김이 닿았으며, 실질적인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했다.

하지만 급격한 발전에는 그림자도 존재했다. 인류의 수는 120억을 넘겼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면 그보다도 훨씬 많았다. 유토피아를 표방하는 F사의 임원진에 대한 대중의 불신도 커져갔다. 기후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졌으며, 미디어도 지구가 한계라고 입을 모아 보고했다. 그즈음, 물리학과 생명공학의 대가였던 맥스웰 박사는 퓨라이트의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수축과 팽창을 통한 새로운 우주 항해법인 '맥스웰서프'를 발명했다. F사는 곧바로 화제의 인물인 맥스웰에게 접촉했고, 머지않아 새로운 22세기를 위한 우주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겉으로는 인류 기술의 찬양과 제2의 퓨라이트 채굴을 내걸었지만 진짜 목표는 F사 임원진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찾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비판과 냉소를 외면한 채, 우주개발팀 '헌트HUNT(High-potential Universe Navigation Team)'를 창설했다.

참고링크)

[SF 영화에서 나오는 초고속 이동 '워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주\]](#)

## ● 스토리

1. 우주개발팀 헌트의 프로젝트 총 책임자이자 산하 연구소 ‘랩 헌트’의 소장 맥스웰은 상황이 탐탁지 않았다.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그였지만 대중들에게는 인류의 문제를 외면하고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아냥과 지배자들의 앞잡이라는 경멸을 들어야 했다. 지배자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미 노년에 접어든 맥스웰은 유토피아를 개척한들, 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은 희박했다. 막대한 돈에 일을 맡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 좋은 일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도착하게 된 행성X에서 맥스웰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지구와 대기는 유사하지만, 환경은 훨씬 척박했던 행성X의 생물 ‘크리퍼’는 유연한 몸과 그들만의 의사체계, 무엇보다도 놀라운 환경적응력을 지니고 있었다. 맥스웰의 이목을 끈 점은 그들이 노화에 강력한 저항체계를 지닌 점이었다. 맥스웰은 이들을 낱알이 연구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2. 랩 헌트는 잡히는 대로 저글링을 포획했다. 무자비한 해부와 화학적 실험을 감행했다. 맥스웰의 지휘 아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크리퍼 중에는 돌연변이 개체가 있었다. 실험체 코드 **DD101**. **DD101**은 다른 개체보다 유달리 호기심이 많았다. 거친 행성X의 지면과 달리 매끈한 연구소의 벽의 차가운 감각에 놀랐다. 이후로 자신을 생포한 인류의 연구시설과 연구 결과, 나아가 인류 그 자체에까지 흥미를 가졌다. **DD101**에게는 인간의 약으로 인해 신체 구조가 바뀔 거란 공포보다도 호기심이 강했다. 연구원의 화학 약물을 본인의 몸에 주입했다. 인간의 글자를 몰라도 본능적으로 약물의 영향을 이해했다. **DD101**은 약물로 자신의 신체를 개조하고 거기에 적응하기에 이르렀다. **DD101**의 실험정신과 연구 결과는 맥스웰의 관심을 끌었다. **DD101**은 특제 유리관에 갇혀 주요 감시대상이 되었다. **DD101**은 화가 났다. 연구 대상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을 가둔다는 것을 받아들이 수 없었다.
3. **DD101**은 이미 평범한 크리퍼가 아니었다. 연구와 개조를 거듭한 몇 달의 기간을 통해 중력을 거스르는 것만 같은 점프가 가능했다. 어느 날 **DD101**은 연구원이 환풍구와 이어진 유리관 위의 천장을 열어둔 것을 발견했다. **DD101**은 자신을 감시하는 경비병의 교대시간을 맞춰 환풍구로 점프했고, 특유의 유연한 몸을 이용해 환풍구의 좁은 틈새를 지나갔다. 한참동안 좁은 통로를 타고 움직인 끝에 드넓은 연구소의 풍경이 펼쳐졌다. **DD101**의 연구는 지금까지 인간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었다. 자유를 얻은 **DD101**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전능감을 느꼈고, 무엇을 먼저 알아볼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랩 헌트의 경비병들이 무장을 하고 달려왔다. 병사들은 **DD101**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천장에 달라붙는 능력을 듣지 못한 이들은 **DD101**의 변칙적인 움직임과 상정 외의 근력에 하나둘씩 쓰러졌다. **DD101**은 역시 인간이 가장 흥미롭다고 여기며 이들의 시체를 관찰하고, 먹기도 해가며 누구보다 순수하게 연구했다. **DD101**은 피크닉을 즐기는 기분으로 연구소를 거닐었다.

4. 랩 헌트의 직원들은 일제히 패닉에 빠졌다.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다. 연구원들은 병사들에게 저글링 한 마리도 제압하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연구원 중 한 명이 DD101에게 당하면서 단순히 병사들만의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다. 연구원들은 천장을 기어다니는 DD101의 성질을 파악해서, 물자의 운반과 수리를 맡던 거미형 로봇 ‘파커’를 동원했다. 바닥과 천장 곳곳에 저글링에게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바른 마름쇠를 설치했다. 하지만 DD101이 퇴치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너무 고요했다. 의아해하는 인류에게 경비병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방금 수석연구원이 살해당했으며, 마지막 유언으로 DD101이 크리퍼의 신체를 액체화하는 약물을 먹었다는 정보를 남겼다는 정보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챈 사람은 없었다. 그 순간, 지하감옥을 순찰하던 경비병에게서 하수시설이 역류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연구원은 자세한 보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비병은 ‘DD101’이라는 마지막 단말마를 남긴 채 송신이 두절되었다.

5. ‘몸은 흐물흐물한데 감각은 더 또렷해. 기분이 이상하네.’

연구소의 하수관을 통해 유유히 지하감옥을 통과하던 DD101은 생각했다. 인간을 죽이고 섭취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거듭할수록 그의 사고체계는 인간과 더 비슷하게 변했다. 그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인간처럼 언어체계를 구사하며 사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더 날뛰고 싶어.’

DD101은 진심으로 인류의 과학에 감탄하며, 들뜬 마음으로 연구소를 배회했다. 마침내 그는 인류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랩 헌트의 특수과학실에 도달했다. 그곳에서는 DD101의 탐구심과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이 즐비했다. 이 불가해함이 오히려 DD101의 의욕을 높였다. 그러던 중, DD101은 유리관 내부에 쌓여 있는 동족들을 발견한다. 죽은 개체도 있었고 살아있는 개체도 있었다.

‘불쌍한 녀석들. 하지만 이것도 자연의 섭리야.’

DD101은 동포들에게 동질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계속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졌다. 그보다 그의 관심을 산 것은 크리퍼를 끊임없이 복제하는 약물이었다.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많은 크리퍼를 만들어내는지 DD101은 알 수 없었다.

‘모르겠으면 해보자!’

DD101은 약물이 든 화학탱크를 향해 뛰어들었다.

6. ‘이게 무슨 느낌이지? 왠지 벽에 문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DD101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지럼’을 느꼈다. 머지않아 그의 피부가 조금씩 일어났다. 어느새 신체도 뱀의 형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일어난 피부가 조금씩 벗겨지더니 허물처럼 분리됐다. 그 허물은 DD101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동작을 수행했다. DD101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분신이란 것을 알아챈다. 인류의 기술에 또 한 번 놀라는 것도 잠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병력이 DD101의 앞을 막았다. 전투병들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있었고, 레이저를 발사하는 터렛이

사방에 포진해 있었다. 혼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DD101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란 것을 깨닫는다.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DD101과 분신은 서로를 바라보고는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다. DD101은 전투병의 공격과 쏟아지는 레이저를 모두 피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새로운 적의 등장에 보고를 우선해야 할지 주저하는 사이를 타 이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DD101은 문의 카드키를 지닌 전투병을 해치우고, 분신은 반대편에서 문을 가로막는 레이저 터렛을 파괴했다. DD101은 분신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자아와 자부심이란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매복해 있던 터렛에서 날라온 레이저가 분신을 관통했다.

## 7. ‘.....’

DD101은 기분이 안 좋았다. 분신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죽음처럼 느껴졌다. 나아가 이 연구소를 탈출해도, 이제는 더이상 크리퍼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했다. DD101은 혼자였다. DD101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맡은 모든 화학약품의 냄새가 느껴지는 랩 헌트의 공장시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이 먹어왔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생명체의 성분을 떠올려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걸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한편 연구소의 입구 앞 로비에서는 연구소의 모든 병력이 모여있었다. 전투병들은 물론 경비원과 연구원들, 레이저 터렛을 비롯한 각종 로봇들. DD101이 탈출을 원한다면 이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전력을 모은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소장 맥스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이런 상황에 소장은 어디에 있는지, 혼자 도망간 것은 아닌지 웅성거렸다. 요 며칠 사이에 연구소 사람 중 맥스웰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때 굉음과 함께 벽이 무너지며 DD101이 등장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유연하다거나 말랑말랑하다고 할 수 없는, 근육질의 몸체였다.

8. 그것도 전투병의 총도 통하지 않는 견고한 근육이었다. DD101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것들이 많았다. 지금 느낀 것은 강력한 근육과 함께 생겨난 사나운 호승심이었다. DD101의 타고난 호기심과 맞물려, 자신의 힘을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를 눈앞의 인류에게 유감없이 쏟아부었다. 마지막 발악이 실패했음을 깨달은 인류는 황급히 지구의 세계정부로 SOS 신호를 보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DD101은 인류의 마지막 기척이 느껴지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생활관의 끝, 소장실의 문을 부수며 들어갔다. 그곳에는 맥스웰이 있었다. 하지만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링거를 통해 액체화된 크리퍼를 주입받는 걸로 모자라 직접 손으로 복제한 크리퍼를 씹어 먹고 있는 그것은 이미 인간과 크리퍼 사이의 무엇이었다. DD101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것이 많았다. DD101은 처음으로 만면에 미소를 띄웠다.

“너 나하고 비슷하구나!”

9. 크리퍼의 힘으로 더 젊고 강해진 맥스웰은 강적이었다. 이성을 잃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과학 능력은 여전했다. 평소 자기 보호에도 철저했던 그가 다루는 장비는 다른 연구원들의 것과 차원이 달랐다. DD101의 근육으로도 데미지를 전부 막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DD101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지금까지의 모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 DD101은 피해를 무릅쓰고 맥스웰의 공격을 받아낸 뒤, 로봇에서 그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말그대로 쥐어짜듯이 맥스웰을 붙잡더니 그대로 먹어버렸다. DD101의 랩 헌트에서의 마지막 만찬이자 연구였다.

얼마 후 지구에서 찾아온 구조대는 폐허가 된 연구소에 생존자는 없을 것이라고 절망한다. 그 때, 폐허 속에서 사람 한 명이 걸어 나온다. 구조대는 환희에 차 생존자와 함께 지구로 귀환한다.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가요?”

생존자의 질문에 구조대원은 의아해하면서도, 120억 정도라고 대답한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에 생존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다.